

“실용주의 ‘회복·성장’...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기본사회’ 재검토 가능성 시사
“탈이념 탈진영으로 위기 극복”
외연 확장 조기대선 모드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에 방점을 찍은 민생 경제 대책을 제시했다.

지지층 외연 확장을 시도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나섰다.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내놨다.

메시지는 중도와 실용을 기조로 한 경제 성장과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였던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 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은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의 전환,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따른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회도 그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 제외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분배 정책에서 가까운 ‘기본사회’ 대신 경제 성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지만 지금은 경제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심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이날 시작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정보 Q&A

Q.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가요?

A. 선거일시는 3월5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새마을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입니다.

Q.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선거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A. 새마을금고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정관 및 규약에 선거공고일 전일인 2월12일 기준 미성년자와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데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새마을금고 회원인 저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 선물을 보냈는데 이것도 기부행위인가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인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힘, ‘이진숙 탄핵 기각’에 “역지 탄핵 책임져야”

민주 “2인 체제 의결 신중해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역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 3일 근무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다”며 “언론 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이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위법한(방통위) 2인 의결이 법원과 분안 소송 판결, 다수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확인이 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별도의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각 의견을 낸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보충 의견으로 ‘탄핵 제도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견제 기능인데, 집행정지로 견제 효과가 상당 부분 거취

저 파면할 필요까진 없다’고 했다”며 “기각 의견 중에서도 탄핵소추의결이 부당하단 주장은 세 분 정도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한계 아니고 2인 의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개별 판단으로 진행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상임위를 운영할 때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과 4명의 인용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www.kps.co.kr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